

## 북한 역사학 형성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

홍종욱\*\*

### [초 록]

초기 북한 역사학은 소련 역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1930년대 이래 형성된 스탈린주의 역사학은 사적 유물론을 기본으로 삼고 러시아 민족주의를 존중하는 소련 국민사였다. 소련 역사학의 이념과 방법은 반식민주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그리려는 북한 역사학의 목표와 일치했다.

1955년 『력사과학』 창간은 북한 역사학의 새로운 출발이었다. 새롭게 만들어갈 북한 역사학의 이념이 민족주의였다면, 주된 방법은 집체 연구 특히 ‘비판과 자기비판’ 문화였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해빙을 맞은 소련 역사학과 연동하면서 북한 역사학계에도 ‘비판과 자기비판’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과 같은 해 가을 헝가리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과 소련의 역사학은 나란히 경직되어 갔다. 리청원에 대한 비판과 숙청은 북한 역사학의 정치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26779).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주제어: 역사주의, 소련 역사학, 국민사, 스탈린주의 역사학

Historicism, Soviet Historiography, National History, Stalinist Historiography

화를 상징한다.

1960년 북한 역사학의 이념으로서 당성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북한 역사학은 소련 역사학을 비판하면서 그와 거리를 두고자 했지만, 이는 동시에 소련 역사학을 내면화하는 과정이었다. 1960년대 북한 역사학은 노예제 논쟁, 근현대 시기구분 논쟁을 거치면서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을 달성했다. 북한 역사학계의 여러 논쟁의 전개와 귀결에는 소련 역사학계의 영향이 짙게 확인된다.

## 1. 머리말

근대 역사학의 대상은 유럽이었다. 그 밖의 지역은 역사가 없는 혹은 역사가 멈춘 곳으로 규정되었다. 근대 역사학은 유럽의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역사학으로 기능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역시 유럽 중심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근대 역사학을 받아들인 일본은 자신과 유럽의 유사성을 찾으려고 애썼다. 자신을 문명과 동일시하려는 노력이었다. 동시에 아시아를 야만으로 표상함으로써 한국 지배와 중국 침략을 정당화했다. 일본 판 식민주의 역사학이었다.

1930년대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식민지와 주변부에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이 관철된다는 주장이 중국과 조선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사이에서 대두되었다. 우리 역사에도 노예제가 존재했다고 주장한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가 대표적이다. 백남운 등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타율성론, 정체성론을 극복하고자 했다. 후일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개념화되는 이와 같은 반식민주의 역사학은 1930년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논쟁 속에서 생겨났다.<sup>1)</sup>

반식민주의 역사학은 북한 건국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다

만 북한 역사학에서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전통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소련을 향해 배워라!”라는 구호가 상징하듯 건국 초기 북한은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문화를 흡수하는데 열중했다. 북한의 역사학 학술지는 상당한 분량을 소련 역사학의 번역과 소개에 할애했다. 1930년대 이래 소련 역사학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역사학의 식민주의적 시선에 맞서 러시아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사 서술에 힘썼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전통 위에서 출발한 북한 역사학은 소련 역사학의 국민사 서술에 배우면서 자신의 이념과 방법을 만들어 가게 된다. 이 글에서는 북한 학술지에 실린 소련 역사학 관련 글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역사학 형성 과정에 소련 역사학이 미친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 2. 『歷史諸問題』의 소련 역사학 수용

### 2.1. 북한 역사학과 소련 역사학

1947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조선역사편찬위원회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했다. “우리 조선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결정서는 “조선 역사 편찬은 가장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사상에 의거하여 조선 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옳게 표시시키어야 한다.”고 밝혔다.<sup>2)</sup> 위원장은 리청원이었다. 북한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10월에는 「조선역사편찬위원회에

1) 홍종욱(2014), 「반식민주의 역사학에서 반역사학으로 — 동아시아의 ‘전후 역사학’과 북한의 역사 서술 —」, 『역사문제연구』 31, 참조.

2) 편집부(1948),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 第一八二號 朝鮮歷史編纂委員會에 關한 決定書」(1947.2.7.), 『歷史諸問題』 1, pp. 178-179.

관한 결정서」를 다시 발표하고, 1949년 1월에는 ‘내각 지시’ 「조선역사편찬위원회의 조직 및 기본과업에 관하여」를 통해 구체적인 조직 운영과 기관지 『歷史諸問題』 발행을 규정했다.<sup>3)</sup> 새 위원장은 백남운이었다.

『歷史諸問題』는 1948년 7월에서 1950년 5월까지 모두 18호가 발행되었다. 창간호에 실린 「머릿말」은 “우리나라 역사 연구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우리 민족의 발전사와 문화 전통을 진지한 과학적 태도로서 고구할 데 대한 긴급성과 중대성의 크나큰 책임이 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역사연구 수준이 “선진국가에 비하여 대단히 빈곤하며 조직성이 결여하며 낙후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고, “창조적인 선진이론을 풍부히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sup>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가’는 소련이고 ‘선진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歷史諸問題』라는 제호 자체가 소련의 학술지 이름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1945년 9월 소련 과학원 역사연구소는 기관지 이름을 『역사잡지』에서 『역사제문제』로 바꿔 새롭게 출발했다.<sup>5)</sup>

[그림 1]은 『歷史諸問題』 창간호 목차다. 「外國史潮」, 「史籍評論」이라는 범주 아래 실린 소련 역사학 관련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련 역사학의 성과는 번역과 소개를 통해 한글 텍스트로 생산되어 다시 북한 학계에서 유통되고 소비되었다. 소련에서 발표된 성과 중 무엇이 얼마나 번역, 소개되었는가를 보면 북한 역사학계의 관심과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학술지에 소개된 소련

3) 편집부(1949),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決定書 第11號 朝鮮歷史編纂委員會에 關한 決定書」(1948.10.2.), 「內閣指示 第8號 朝鮮歷史編纂委員會의 組織 및 基本課業에 關하여」(1949.1.14.), 『歷史諸問題』 5.

4) 편집부(1948), 「머릿말」, 『歷史諸問題』 1, pp. 2-4.

5) 和田春樹(1976), 「戰後ソ連における歴史家と歴史学 — ソ連史学史ノート(その一)」, 『ロシア研究』 25, p. 10. 혼란을 피하기 위해 소련 학술지는 『역사제문제』, 북한 학술지는 『歷史諸問題』로 표기하였다.



관한 각서」가 발표되었다. 같은 시기 모스크바 대학과 레닌그라드 대학에 역사학부가 다시 설치되었다. 1938년 10월에는 스탈린주의 역사학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소련공산당 역사』가 발행되었다. 스탈린이 직접 집필한 제4장 제2절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는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라는 5단계 발전론이 제시되었다.<sup>7)</sup>

북한의 『歷史諸問題』에는 소련 역사학의 변천을 설명하는 글이 실렸다. 제2호에 실린 「30년간의 소련사 연구의 총결」이라는 부제를 붙인 글은, 스탈린이 ‘순수한 사회학적 연구’를 넘어 ‘구체적인 역사의 새 문제로 연구’할 것을 호소하여 포크로프스키적 왜곡을 극복했다고 밝혔다.<sup>8)</sup> 또한 ‘역사를 가지지 못한 열등한 민족’으로 간주되던 이들이 역사 과학의 원조로 ‘민족의 역사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민족 연구도 진행되어 고대 러시아의 노예제 문제가 검토되고 중세 농민의 삶이 밝혀져 러시아의 역사가 서구 제국과 병행 발전해 왔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았다.<sup>9)</sup>

제3호에는 당시 소련 역사학계를 주도하던 판크라토바(A. M. Pankratova)가 1942년 발표한 글이 번역되어 실렸다. 이 글은 1930년대 중반에 추상적 사회학적 개념이 국가사 연구를 대치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포크로프스키 비판을 가리킨다. 또한 스탈린, 키로프, 즈다노프의 「교과서 개요에 관한 각서」가 역사 과학의 방법론적 지시를 주었다고 평가했다. 『소련공산당 역사』의 의의를 강조한 뒤 이 책이 북한에서 번역되어 ‘애독할 기회’가 생겼으니 ‘풍부한 시사’를

7) 조호연(2001), pp. 189-192. 立石洋子(2011), 『国民統合と歴史学: スターリン期ソ連における「国民史」論争』, 学術出版会, 참조.

8) 編輯部 역(1948), 「[자료] 仝聯邦科學翰林院 歷史學部 事業紹介 — 三十年間의 仝聯史 研究의 總結 —」, 『歷史諸問題』 2(八·一五解放記念特輯號), p. 207.

9) 編輯部 역(1948), pp. 214-216.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sup>10)</sup> 이 책은 1948년에 『소聯 共產黨(불셰위끼) 歷史 (간략독본)』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1930년대 소련 역사학은 국제주의적-이상주의적인 시각으로부터 국가주의적-애국주의적 교의로 강조점이 변화했다.<sup>11)</sup> 이는 1930년대 세계적인 민족주의, 국가주의 대두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1935년 코민테른 제7회 대회에서 디미트로프는 공산주의자가 “인민 대중의 민족심리의 특수성에 대해 올바르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2)</sup> 코민테른의 새로운 전술은 공산주의자를 ‘국민문화’의 옹호자로 자리매김 했다.<sup>13)</sup>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전투를 치르면서 러시아 민족주의는 더욱 고양되었다.

## 2.2. 스탈린주의 역사학의 소련 ‘국민사’

1947년 ‘두 개의 진영’론을 주창하여 냉전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유명한 즈다노프(A. A. Zhdanov)는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러시아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전후 소련 문화계와 학계를 옥죄었다. 즈다노프가 1946년 8월에 문학잡지 『즈베즈다』와 『레닌그라드』를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한 데서 그 서막이 올랐다.<sup>14)</sup> 『歷史諸問題』 창간

10) 編輯部(함일철 역)(1948), 「[학계동향] 소聯 史學界의 指標와 그 發展」, 『歷史諸問題』 3, pp. 200-201.

11) 조호연(2001), p. 193.

12) 디미트로프(1987), 「파시즘의 공세와 파시즘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의 통일을 추구하는 투쟁에서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임무」(코민테른 제7회 대회 연설), G. M. 디미트로프(김대진 편역), 『통일전선연구 — 반파시즘 통일전선에 대하여 —』, 거름, p. 145.

13) 케빈 맥더모트·제레미 애그뉴(황동하 역)(2009), 『코민테른 — 레닌에서 스탈린까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 서해문집, p. 208.

14) 和田春樹(1976), p. 12.

호에 실린 「소련사 연구의 제문제」라는 글에서는 ‘쏘련 역사 및 연구 부문에 있어서 명백한 낙후성’에 대해 “『즈베즈다』지와 『레닌그라드』지에 관한 즈다노프 동지의 보고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논술되어 있다.”고 밝혔다.<sup>15)</sup>

『歷史諸問題』창간호에는 1947년 6월에 열린 알렉산드로프의 『서구철학사』에 대한 토론회를 소개하는 글이 실렸다. 토론회에서 『서구철학사』의 오류와 부족점에 대해 ‘심각하고 상세한 비판’을 행한 것은 즈다노프였다. 즈다노프는 먼저 “과학으로서 철학사의 연구대상이 정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 등 철학사 교과서에 요구되는 다섯 가지 점을 밝혔다.<sup>16)</sup> 즈다노프는 철학사를 “유물론과 유심론의 대립투쟁사”라고 보고,<sup>17)</sup> 이 책은 ‘객관주의적 관념’에 빠져 부르주아 철학사가들의 ‘포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sup>18)</sup> 또한 1946년의 즈다노프의 비판 즉 “사상방면의 공작에 대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의(『즈베즈다』와 『레닌그라드』라는 잡지와 극장상연목록과 또 기타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이 ‘부르주아 철학에 대한 숭배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sup>19)</sup> 즈다노프는 ‘철학의 당성 원칙’을 강조했다. 그리고 “철학 전선이 불순한 상태에 처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철학 사업에 불췌비끼적 비판과 자아비판이 전개되지 못한 데 있다”고 역설했다. 토론 마지막에 알렉산드로프가 “엄중한 오류와 결함이 있음을 승인”한 것이 인상적이다.<sup>20)</sup>

15) 에·겐카나(編輯部 역)(1948), 「외국사조」 쏘련史(쏘베트時代) 研究의 諸問題 (이쓰포리誌 一九四七年 第三號), 『歷史諸問題』 1, p. 138.

16) 그·가크·마끼로프스끼(한빈 역)(1948), 「史籍評論」 아레크산드로브著 西歐 哲學史冊에 對한 討論要旨 總括(볼췌비크誌 一九四七年 第十五號), 『歷史諸問題』 1, p. 151.

17) 그·가크·마끼로프스끼(한빈 역)(1948), p. 152.

18) 그·가크·마끼로프스끼(한빈 역)(1948), p. 154.

19) 그·가크·마끼로프스끼(한빈 역)(1948), p. 156.



1947년 5월 이후 즈다노프는 소련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바르가를 비판한다. 이 내용은 『歷史諸問題』 제3호에 「부르주아 방법론에 포로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실렸다.<sup>21)</sup> 부르주아지의 포로가 되었다는 표현은 즈다노프가 알렉산드로프에게 썼던 표현 그대로다. 비판의 핵심은 바르가가 전시 자본주의 국가의 조정적 역할을 강조하여 이를 ‘계획성’이라고까지 정식화한 점에 맞춰졌다. 아울러 바르가가 동유럽 신민주주의 국가들을 국가자본주의로 개념화하고 제국-식민지 관계를 재고하려 한 점 등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sup>22)</sup>

즈다노프의 비판은 문학, 철학, 경제학을 거쳐 역사학을 겨누었다. 비판의 대상은 루빈스테인의 『러시아 사학사』(1941)였다. 루빈스테인은 즈다노프의 알렉산드로프 비판 연설을 인용한 자기비판을 1948년 2월에 먼저 발표했다. 이 글은 『歷史諸問題』 제4호에 김석형의 번역으로 실렸다.<sup>23)</sup> 같은 해 3월에 소련 고등교육성 주최로 전국 대학 소련사 강좌장이 모인 가운데 열린 루빈스테인 저서 토론회 내용은 『歷史諸問題』 제5호에 번역 수록되었다. 토론회 모두에 고등교육성 부상 스페드로프는 “이 회의는 역사 전선에 있어서 다면적이고 심각한 비판과 자아비판 또 역사영역의 교수역량에 대한 검열의 시초가 됨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sup>24)</sup>

20) 그·가크·마끼로프스끼(한빈 역)(1948), pp. 158-159.

21) 르·가토프스끼(崔錫錫 역)(1948), 「[사적평론] 부르주아 方法論에 捕虜되었다 — 資本主義 諸國의 戰時經濟와 平和經濟에로의 移行에 關하여 —」(불췌 위끼誌 一九四八年 第五號), 『歷史諸問題』 3, 참조.

22) 노경덕(2010), 「바르가 논쟁의 재고, 1941~1949」, 『역사학보』 206, p. 259.

23) 느·루빈슈제인(金錫亨 역)(1948), 「[외국사조] 史料編纂學의 基本的 諸問題」(『이스토리』誌 一九四八年 二月號(原著名 로씨야 編史學 構成의 基本的 諸問題)), 『歷史諸問題』 4, 참조.

24) 아·보지노브(韓斌 역)(1949), 「[외국사조] 느·르·루빈시데인의 著書 『로씨야 編史學』에 關한 討議」(이스토리誌 一九四八年 六號), 『歷史諸問題』 5, p. 169.

여러 토론자는 즈다노프의 알렉산드로프 비판이 그대로 루빈스테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적 입장에서 아니라 객관주의적 정신하에서 해설”되어, “유물론과 유심론과의 투쟁에 대한 제시가 없다”는 것이었다.<sup>25)</sup> 아울러 이 책이 독일 사학자들을 추종하여 고대 러시아 역사를 부정하고 러시아 국가의 노르만 기원설을 높게 평가한다고 비판했다.<sup>26)</sup> 러시아의 민족주의 역사학에 대한 옹호였다. 알렉산드로프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발언은 루빈스테인의 몫이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불세비키적 당성이 없는 것은 부르주아 전통의 영향이라고 자기비판했다.<sup>27)</sup>

소련 역사학자들은 러시아 배외주의 확산에 저항했다. 과학원 역사연구소 기관지 『역사제문제』 1948년 12월호는 「역사학에서 객관주의에 반대한다」는 권두 논문을 실었다. 이 글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는 명목으로 러시아 배외주의 경향을 비판했다. 1949년 1월호에 실린 민츠의 논문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애국심과 소비에트 애국심의 혼동”을 지적했다. 12월호 권두 논문의 주장을 더욱 명확히 한 셈이다.<sup>28)</sup> 민츠의 이 글은 북한의 『歷史諸問題』 제9호에 번역되었다.<sup>29)</sup> 소련의 『역사제문제』는 1949년 1월호를 끝으로 발간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1949년 초 소련 학계에서는 코스모폴리타니즘 비판이 고조되고 반유대인 캠페인이 벌어졌다. 역사학계에서는 민츠와 루빈스테인 등이 유대인이었다.<sup>30)</sup>

25) 아·보지노브(韓斌 역)(1949), p. 176, p. 170.

26) 아·보지노브(韓斌 역)(1949), p. 174.

27) 아·보지노브(韓斌 역)(1949), pp. 193-194.

28) 和田春樹(1976), p. 24.

29) 이·민쯔(梁壽瑩 역)(1949), 「[외국사조] 레닌과 소비에트 歷史科學의 發展」, 『歷史諸問題』 9, 참조.

30) 和田春樹(1976), pp. 24-25.

『역사제문제』 1949년 제2호는 편집부가 대폭 교체된 뒤 넉 달 늦은 6월에 발행됐다. 여기에 실린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출현과의 투쟁에서 소비에트 역사가의 임무에 관하여」라는 글에서는 부르주아적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분쇄하자며 민츠와 루빈스테인 등을 비판했다.<sup>31)</sup> 이 글은 북한의 『歷史諸問題』 제11호에 번역되었다.<sup>32)</sup> 이후 코스모폴리타니즘 비판 글이 많이 소개되었다. 『歷史諸問題』 제12호에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엄중한 오류’를 지적하고 역시 민츠와 루빈스테인을 비판하는 글이 번역되어 실렸다.<sup>33)</sup> 『歷史諸問題』 제13호에도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민족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민족문화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는 글이 번역되었다. 이 글에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비판이 철저하지 않았다고 『역사제문제』에도 책임을 물었다.<sup>34)</sup>

『歷史諸問題』가 소개한 소련 역사학 성과 가운데는 동양 고대사 연구가 많았다. 창간호에 실린 「소련 과학한림원 사업 소개 — 역사학 연구 사업의 제성과 —」는 “최근 외국의 고대 동양문화 연구를 보면 고대 동양민족을 문화발달에 무능한 열등 인종으로 간주하는 인종차별주의적 「이론」의 영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하고 “서양의 고대 동양사 과학에서는 「병어리」였던 고대 동양민족들이 소련의 역사과학에서 마음껏 큰소리로 「말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sup>35)</sup> 제14호에 실

31) 和田春樹(1976), p. 29.

32) 편집부(1949),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出現과의 鬪爭에 있어서의 소비에트 歷史家들의 課業에 關하여」, 『歷史諸問題』 11, 참조.

33) 編輯部 譯(1949), 「[외국사조] 소련全聯盟共產黨 불위위끼 中央委員會內 社會科學 아카데미에서 取扱된 問題」(이스토리 一九四九年 二號), 『歷史諸問題』 12, p. 177.

34) 朴曉鐘 譯(1949), 「[외국사조] 近世史 및 最近世史 分野에 있어서 소비에트 歷史家들의 諸課業」(소련 『歷史諸問題』 一九四九年 三號 論說), 『歷史諸問題』 13, p. 133, p. 139.

린 「노예소유자 사회 국가 형태 연구의 제문제」는 스탈린이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1938)에서 밝힌 다섯 가지 발전단계를 언급한 뒤, “고대 ‘동방 전제정치’도 “노예소유국가의 설정과 발전의 역사라는 견지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sup>36)</sup> 124

제16호에 실린 「소비에트 역사학에서 고대 동양에 관한 제문제」는 동양의 ‘停滯性’을 강조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동양 민족과 서양 민족을 대립시키는 것은 ‘부르주아 역사학설의 종극적 기초인 인종설’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시공동체적 제도가 농노제도에 의하여 교대된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에 의하여 교대되었다”고 주장하고, “고대 동양사회의 노예제적 성질을 주장하는 이론이 승리하였다”고 정리했다.<sup>37)</sup> 같은 호 「편집후기」에서는 “우리 조선에 있어서 노예사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가 오랜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이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 논문은 연구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소련의 동양 고대사 연구가 많이 소개된 것은 북한 역사학계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소련 역사학의 목표는 동양을 열등하고 정체된 민족으로 파악하는 서구의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동양도 서구와 같은 역사적 발전을 거친 점을 밝히는 데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원시공산제에서 노예제를 거쳐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이어지는 스탈린의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에 입각하여 동양 고대에도 노예제가 존재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새롭

---

35) 보·프레구부흐(編輯部 역)(1948), 「[자료] 兪聯科學翰林院 事業紹介 — 歷史學 研究 事業의 諸成果 —」, 『歷史諸問題』 1, pp. 163-164.

36) 韓龍泳 역(1949), 「[외국사조] 奴隸所有 社會 國家 形態研究의 諸問題」(『古代史通報』誌 一九四九年 二號), 『歷史諸問題』 14, p. 124.

37) 브·브·스두루베(韓斌 역)(1950), 「[외국사조] 兪베트 編史學에 있어서의 古代東洋에 關한 諸問題」(一九四九年 兪聯 『古代史通報』 제2집), 『歷史諸問題』 16, pp. 51-56.

게 출발하는 북한 역사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歷史諸問題』에 실린 여러 글 가운데 북한 역사학이 배우려는 소련 역사학의 전체상을 잘 담은 글은 박시형이 번역해 제5호에 실은 「역사 교수에 관한 기본 방향 — 조국(소련)사 교수에 관하여 —」였다. 이 글은 소련사 연구가 ‘애국주의’ 즉 ‘국민적 가치’와 ‘국민적 긍지’를 느끼도록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sup>38)</sup> 이어 ‘조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국가 발생 문제라고 밝힌 뒤, 외래 민족이 러시아 국가의 기초를 세웠다는 ‘노르만 설’을 비판했다. ‘노르만 설’의 정치적 해독은 오직 ‘더 문화적인 구라파 민족’만이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여 슬라브 민족의 능력을 부인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sup>39)</sup>

또한 즈다노프의 말을 인용하여 “레닌주의는 19세기의 로씨야 민주주의자-혁명운동가들의 가장 우수한 모든 전통들을 체현한 것이며, 또 우리 쏘베트 문화는 과거의 문화유산의 비판적 섭취와 기초 위에서 일어났고 발전하였고 개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엥겔스가 러시아 문학에 대해 “독일이나 불란서에서 공식적인 역사과학에 의하여 달성된 것보다는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한 점을 소개했다.<sup>40)</sup> 이 글에서는 러시아의 역사적 유산,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이 드러나는 동시에 서구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한편 소련에 포함된 여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러시아에 맞선 주변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예를 들어 “로씨야에 합

38) 느·야꼬브레츠(朴時亨 역)(1949), 「[외국사조] 歷史教授에 關한 基本方向 — 祖國(소련)史 教授에 關하여 —」(볼셰위키 一九四七年 第二二號), 『歷史諸問題』 5, p. 141.

39) 느·야꼬브레츠(朴時亨 역)(1949), pp. 144-145.

40) 느·야꼬브레츠(朴時亨 역)(1949), pp. 152-155.

병시키는 것이 설령 그것이 짜리즘의 억압을 초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가장 착잡한 역사적 정세하에서는 최소의 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주변 민족에 대한 러시아 문화의 진보적 영향을 언급했다.<sup>41)</sup> 이른바 ‘최소의 악’ 논리다.<sup>42)</sup> 러시아 민족과 주변 민족을 엮어 소련 애국주의를 합리화하려는 고민이 엿보이지만, 전형적인 제국주의 논리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 예컨대 한국이 일본과 병합되지 않았다면 러시아에 의해 더 혹독한 지배를 받았을 거라는 일본 제국주의 논리를 떠올리게 된다.

소련 역사학은 러시아 민족의 내재적 발전을 바탕으로 한 소련의 ‘국민사’를 설파했다. 구체적으로는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이라는 스탈린주의 역사학의 방법론을 따랐다. 소련 역사학의 이념과 방법은 반식민주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그리려는 북한 역사학의 목표와 일치하며 그러한 노력을 더욱 북돋우는 역할을 했다. 한편 러시아 민족과 주변 민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는 국민사에 균열을 가져올 제국주의적 시선도 엿보인다. 이 지점은 195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정세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소련 역사학과 북한 역사학이 갈등하는 소지가 된다.

### 3. 『력사과학』 발행과 북한 역사학 만들기

#### 3.1. 북한 역사학의 이념: 민족주의

북한은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12월에 과학원을 설립했다. 그 산

---

41) 느·야꼬브레츠(朴時亨 역)(1949), pp. 147-149.

42) ‘최소의 악’ 혹은 ‘더 작은 악’(lesser evil) 개념에 대해서는 立石洋子(2011), pp. 167-170.

하에는 조선력사편찬위원회를 계승하여 력사학연구소가 설치되었다. 과학원 력사학연구소는 1955년부터 기관지 『력사과학』을 발행한다.<sup>43)</sup> 『歷史諸問題』가 소련의 학술지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걸 생각하면, 『력사과학』이라는 이름에서는 새롭게 북한 역사학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가 느껴진다. 『력사과학』은 『歷史諸問題』와 달리 권두언을 두어 북한 역사학의 이념과 방법을 제시했다.

『력사과학』 창간호는 「조선 력사 과학 전선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권두언을 실었다. 창간사에 해당하는 이 글은 “조선 인민은 오랜 력사를 두고 내려 오는 사이에 자기들의 창조적 로력으로써 이룩한 휘황한 력사적 전통을 가진 민족”이라고 선언하고,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한 허무주의적 편견을 버리고 고귀하고 우수한 전통을 정당히 평가하자고 주장했다.<sup>44)</sup> 아울러 마르크스·레닌주의 입장에서 조선 역사를 분석하고자 했다. 왕이나 장군의 역사가 아니라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근로 대중, 인민의 역사를 중시했다. 레닌의 말을 빌려 ‘부르주아 객관주의’와 ‘유물론적 이해’ 사이에는 심연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sup>45)</sup> 당성 제고를 주장하는 동시에 민족적 자부심을 강조하고 코스모폴리타니즘과 민족 허무주의를 배격했다.<sup>46)</sup>

1955년 제5호 권두언 역시 당성 제고와 마르크스·레닌주의 무장을 강조하면서도, 김일성의 말을 빌려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책을 독경식으로 읽으며 개개의 문구를 인용하며 암송”할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 역사 연구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수많은 맑스-레닌주의 학자들조차도 입만 벌리면 희랍은 운위하면서 자

43) 김광운(2011),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환경」, 『한국사연구』 152, p. 280.

44) 편집부(1955a), 「조선 력사 과학 전선의 과업에 대하여」, 『력사과학』 1955-1, p. 1.

45) 편집부(1955a), pp. 2-3.

46) 편집부(1955a), p. 5.

기의 조상에 관해서는 미안하지만 잊어버리고 있다”는 모택동의 말을 인용한 뒤, ‘교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창조적 태도’를 갖출 것을 주장했다.<sup>47)</sup>

교조주의의 전형으로는 조선력사편찬위원회에서 낸 『조선고대사』(1951)에서 노예제는 최초의 계급사회이고 뒤를 이어 농노제가 나타났다는 레닌의 명제를 가져온 뒤 구체적 분석 없이 조선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하는 데 그친 사실을 들었다. 거꾸로 주나라 때 봉건 사회에 들어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원시 사회에서 조기 봉건 사회로 들어가 노예제는 없었다는 주장 역시 교조주의의 폐단으로 보았다.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를 우리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김일성의 노작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8)</sup>

당성 제고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무장과 함께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언설이 눈에 띈다. 『歷史諸問題』에 소개된 소련 역사학 성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비슷한 논조의 글이 『력사과학』에도 다수 실렸다. 1955년 제11호에 번역되어 실린 글에서는 ‘세계의 위대한 민족들 중의 하나’인 러시아 민족의 형성 및 발전은 근대 이후가 아니라 근 3세기의 시간을 걸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sup>49)</sup> 1955년 제12호에 실린 글에서는 슬라브 인민의 역사를 무시하는 서구 역사가들에 대항하여 코발레프스키가 슬라브 인민의 공동체를 연구한 사실을 강조했다.<sup>50)</sup> 소련 역사학이 서구 역사학을 의식했다면, 북한 역사학은 일본이 남긴 식민주의적 역사인식을 극복해야 했다. 소련 역사학과 북한

47) 편집부(1955b), 「계급적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역사가들의 전투적 과업」, 『력사과학』 1955-5, pp. 5-6.

48) 편집부(1955b), pp. 6-7.

49) 에스·에스·드미트리예브(1955), 「[번역] 로씨야 민족의 형성」(《력사제문제》 1955년 7호), 『력사과학』 1955-11, p. 98.

50) 빼·에프·랍쥘(1955), 「[번역] 엠·엠·꼬왈렙스끼의 저서들에서의 공동체에 관한 제 문제」(《력사제문제》 1955년 9호), 『력사과학』 1955-12, p. 80.



역사학은 자신의 주체성과 존엄을 세워야 하는 주변부 국가의 절실함을 공유했고, 소련 국민사의 이념과 방법은 북한의 민족사 연구로 이어졌다.

### 3.2. 북한 역사학의 방법: ‘비판과 자기비판’

새롭게 만들어갈 북한 역사학의 이념이 민족주의였다면, 주된 방법은 집체 연구 특히 ‘비판과 자기비판’ 문화였다. 『력사과학』 창간사는 북한 역사가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다. (1)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입각해야 한다. (2) 수공업적 방식과 산만성을 극복하고 집체적 연구와 상호 협조와 동지적 방조의 작풍을 수립해야 한다. (3) 비판과 자기비판을 광범히 전개해야 한다. 세 번째로 든 ‘비판과 자기비판’은 “력사 전선에 있는 엄중한 결함과 병’집들을 신속하게 극복”하는 데 필요한 “발전의 진정한 동력의 하나”로 강조되었다.<sup>51)</sup> 1955년 제5호 권두언에서도 ‘비판과 자기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에트 과학에서 거대한 역할을 한 생물학, 철학사, 언어학, 정치경제학에 관한 토론이 모두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sup>52)</sup>

『歷史諸問題』에 실린 소련 역사학 글에서 자주 언급된 ‘비판과 자기비판’이 『력사과학』 창간사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으로 용어를 바꾸어 북한 역사학의 핵심 과제로서 제시된 것이다. 소련 학계의 ‘비판과 자기비판’은 ‘디스꾸시야’(дискуссия[discussion])라는 관행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디스꾸시야는 “참여자들이 당국에 의해 아직 결정되지 않는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의 논쟁의 기술을 드러내는” 규칙 의례였다. 디스꾸시야는 비판을 받아 패배한 쪽이 자신의 “견해

51) 편집부(1955a), pp. 4-5.

52) 편집부(1955b), p. 11.

를 집단의 입장에 종속시키고, 비판을 전면 수용하며 자아비판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비판과 자기비판’ 그리고 ‘디스꾸시야’라는 의례를 1930년대부터 추진해 온 이는 다름 아닌 즈다노프였다.<sup>53)</sup>

즈다노프의 바르가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디스꾸시야는 온전한 학술적 성격의 장은 아니었다. 바르가에 대한 비판은 정치경제론 내용보다는 러시아 민족주의, 반외국인 정서, 그리고 세대 갈등에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 바르가는 유대인 원로 학자였다. 정세의 영향도 컸다. 1945년 이후 바르가는 동유럽에서 급진적 산업화와 집단화가 아닌 점진적 개혁을 제안했다. 1947년 시점에서 바르가에 대한 비판이 힘을 얻은 것은 마셜 플랜 발표 이후 냉전이 격화됐기 때문이었다.<sup>54)</sup> 논쟁이 쉽사리 결론을 맺지 못하면 당의 핵심 지도자가 이에 개입했다. 즈다노프가 1947년 봄의 철학 논쟁에 개입했고, 1950년 언어학 논쟁에서는 스탈린 자신이 결론을 내렸다. 패자는 다시 집단에 통합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원히 숙청되었다. 1948년에 즈다노프가 사망한 뒤 바르가는 자기비판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바르가는 다시 소련 지성계에 통합되어 그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sup>55)</sup>

『력사과학』 1955년 제9호에는 「학자의 수기 — 당면한 문제들 —」이라는 글이 번역되어 실렸다. 이 글은 “지적된 결점들은 인간의 속성이므로 퇴치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비판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에 있는 결점은 인간의 천성으로부터 나오는 근절할 수 없는 결함”이 아니므로 “건전한 개선의 불가피성에 대한 전반적 동의와 이해”가 있다면 곤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sup>56)</sup> 『력사과학』에서 굳

53) 노경덕(2010), 「바르가 논쟁의 재고, 1941~1949」, 『역사학보』 206, 참조. Alexei Kojevnikov. 2000. “GAMES OF STALINIST DEMOCRACY: Ideological discussions in Soviet sciences, 1947-52”, in *Stalinism: New Directions*, edited by Sheila Fitzpatrick, 142-76. London: Routledge.

54) 노경덕(2010), p. 249, p. 261.

55) 노경덕(2010), pp. 264-267.

이 이 글을 소개한 것은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론에 바탕하여 ‘비판과 자기비판’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된다.

북한 역사학계는 ‘비판과 자기비판’을 위한 장으로서 각종 ‘토론회’와 ‘합평회’를 조직했다. 1955년 7월 과학원 력사학연구소 주최로 김일성 종합대학 강당에서 『조선중세사(상편)』(국립출판사, 1954)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력사학연구소 소장인 박시형 원사가 직접 서평 보고를 맡았다. 박시형은 책의 ‘체제상의 결함’을 먼저 지적한 뒤 ‘과학적 및 정치사상적 결함’을 모두 일곱 가지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시형은 이 토론회가 “우리 력사학계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을 가일층 촉진시키는 한 개의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sup>57)</sup> 이어 김석형 연구사를 비롯한 5명의 토론자들이 보고 내용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1956년 9월에는 『조선통사(상)』에 대한 합평회가 열렸다. 여러 토론자에 의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상에서 지적된 결함들은 결코 이 《조선통사》가 조선 력사학계에 끼친 공적을 조금도 가볍게 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들이 함께 논의되었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마지막은 “필자들은 이상에서 제기된 의견들과 여기서 열거하지 않는 개개의 구체적인 오류들과 부족점들에 대하여 다음에 재판 또는 새롭게 집필될 《조선통사》에 좋은 참고로 된다고 강조하였다.”고 끝맺었다.<sup>58)</sup> 이후 토론회와 합평회는 수시로 조직되어 북한 역사학계의 하나의 의례로 자리 잡게 된다. 주목할 것은 『력사과학』 발행 초기 토론회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지적이나 개인 공격 없이 시종일관

56) 엘·쎬도브(1955), 「[번역] 학자의 수가=당면한 문제들」, 『력사과학』 1955-9, p. 108.

57) 편집부(1955), 「[학계소식] 《조선 중세사(상편)》에 관한 토론회」, 『력사과학』 1955-9, p. 112.

58) 편집부(1956), 「[학계소식] 《조선통사》(상)에 대한 합평회」, 『력사과학』 1956-6, p. 93.

학술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같은 시기 소련 역사학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 역사학계는 일종의 해빙기를 맞게 된다. 소련 과학원 역사연구소장 시드로프는 『역사제문제』 편집장에 판크라토바, 부편집장에 부르자로프를 추천했다. 판크라토바는 『역사제문제』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부동의를 밝히는 장소’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르자로프는 역사학을 ‘당의 무기’로 삼는다는 것이 『역사제문제』가 ‘교조적 조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 편집부가 처음 출판한 1953년 제6호 권두논문은 ‘창조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지에서 독자 회의를 개최하고 『역사제문제』 속에 「독자의 편지와 주석」이라는 지면을 두었다. 『역사제문제』 발행 부수는 1953년 4천 부에서 1956년 6만 부로 성장했다.<sup>59)</sup>

소련 내 여러 민족이 러시아에 대항하여 일으킨 봉기의 역사 등 스탈린 시기에 억압되었던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1955년에는 스탈린을 상대화하고 트로츠키를 재평가하는 움직임까지 있었다.<sup>60)</sup> 1956년 2월의 제20회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행해진 흐루쇼프의 스탈린 비판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제1부수상 미코얀은 공산당과 소비에트사는 ‘우리 이데올로기 활동 가운데 가장 후진적인 분야’라고 발언하여 공산당사에 관한 스탈린 시기의 공식 견해가 적힌 『소련공산당 약사』를 비판했다. 판크라토바도 이 대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는 당 지도부의 역사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부르자로프는 『역사제문제』 편집회의에서 제20회 당대회를 언급하면서 “『소련 공산당 약사』는 붕괴했다, 토대로부터 무너져 내렸다”고 발언했다.<sup>61)</sup>

59) 立石洋子(2017), 「『雪どけ』とソ連の歴史学 — 1953-56年の『歴史の諸問題』誌の活動 —」, 『成蹊法學』 87, pp. 69-71.

60) 立石洋子(2017), p. 72.

61) 立石洋子(2017), pp. 78-80.

역사학 논쟁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 시기 소련 역사학계의 논쟁은 『력사과학』 지면을 통해 북한 학계에도 전해졌다. ‘봉건제도의 기본적 경제법칙’에 관한 논쟁은 『력사과학』 1955년 제2호, 제6호, 제10호에 체계적으로 소개되었다. 소비에트 시기 역사 시대 구분 즉 ‘소련사 시대 구분’ 논쟁도 1955년 제1호와 제6호에 소개되었다. 두 개의 논쟁을 보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격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비판 없이 매우 학술적인 대화가 오고 간 것이 확인된다. 스탈린 사후 소련 역사학계의 해빙이 같은 시기 북한 역사학계의 ‘비판과 자기비판’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 4. ‘교조주의’ 비판과 북한 역사학의 경직화

##### 4.1. ‘8월 전원회의 사건’과 북한 역사학의 경직화

1956년 여름을 지나면서 『력사과학』 지면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소련 역사학 성과에 대한 ‘번역’이 사라진 것이다. 1955년에는 월간으로 총 12호가 발간되었는데 ‘번역’이라는 범주 아래 모두 18편의 글이 실렸다. 소련 글 16편, 중국 글 2편이었다. 1956년부터는 격월간이 되어 1년에 총 6호가 발행되었는데, 제1호에 소련과 중국 글이 각각 1편씩 실린 게 전부다. 그리고 1957년에 재소 고려인 역사학자 미하일 박의 글이 한 편 실린 이후로는 ‘번역’이라는 범주 자체가 사라졌다. ‘학계 소식’을 통해 중요한 동향은 소개되었지만, 여기에는 북한 역사학계의 동향과 더불어 소련뿐 아니라 중국, 몽골, 베트남, 동유럽 학계 소식도 담겼다. 적어도 『력사과학』 지면 구성에서 ‘소련을 향해 배운다’는 느낌은 떨어진 셈이다.

1956년 여름 북한에서는 ‘8월 전원회의 사건’이 일어났다. 소련계와

연안계가 힘을 합쳐 김일성 개인 지배에 도전한 사건이다. 사전에 정보를 손에 넣은 김일성 측은 도전을 제압했지만, 소련과 중국 정부는 미코얀과 팡덕회라는 거물급 인사를 평양으로 보내 김일성을 견제했다. 그해 10월 일어난 헝가리 사태로 체제 위기를 느낀 소련이 김일성의 권력 독점을 용인하게 되지만, 어찌 됐건 김일성으로서는 소련과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져야만 했다. 역사학계도 ‘8월 전원회의 사건’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 연안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최창익은 유력한 근대사 연구자이기도 했다. 『력사과학』 지면의 변화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sup>62)</sup>

소련 역사학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역사학의 해빙에 대하여 ‘학술의 당파성 원칙에서 이탈’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흐루쇼프 등 당 지도부는 『역사제문제』의 새로운 방향을 지지했다.<sup>63)</sup> 그러나 1956년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헝가리에서 반소 봉기가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체제 비판이 고조되면서 당 지도부는 『역사제문제』의 활동을 정치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sup>64)</sup> 1957년 3월 당 중앙위원회는 『역사제문제』가 부르주아 역사학에 대한 역사가의 투쟁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고 부르자로프를 해임했다. 그 해 5월 판크라토바는 심장 이상으로 사망했다.<sup>65)</sup>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을 계기로 북한 역사학이 경직되기 시작할 무렵, 소련에서는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찾아온 역사학의 해빙

62)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최창익 비판에 대해서는 조수룡(2020), 「경합하는 ‘혁명전통’ —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이해와 재구축 —」, 『사학연구』 137 참조.

63) 立石洋子(2017), p. 73.

64) 和田春樹(2016), 『スターリン批判 1953~56年: 一人の独裁者の死が、いかに20世紀世界を揺り動かしたか』, 作品社, pp. 389-400.

65) 和田春樹(1977), 「スターリン批判: 1953-56」,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編, 『現代社会主義 その多元的諸相』, 東京大学出版会 참조.

기가 닫히게 된다. 북한 역사학과 소련 역사학의 동시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사회와 학계의 변화는 소련에 대한 거리두기로 드러났다. 1957년에 이르러 북한-소련 관계는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소련 문화 유입을 담당했던 조선 대외문화 연락협회의 역할이 대폭 줄었고, 전쟁 때도 이어졌던 ‘조-소 우호의 달’ 행사가 중단되었다. 1957년 10월에 북한에 파견된 소련 기술자·학자·고문관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소련의 영향력은 더욱 감소했다.<sup>66)</sup>

북한 역사학이 폐쇄성을 띠기 시작한 1956년 겨울에 『력사과학』 1956년 제6호 권두언으로 박시형의 「조선 력사 연구 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가 실렸다. 박시형은 “과학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의 연구를 진실로 과학적인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하여서는 선진적 방법, 맑스-레닌주의 이론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외국 특히 소련의 선진 과학의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거 력사를 회고할 때 각 시기의 학문과 예술에 있어서 그 고도의 발전이 어느 하나가 당시 외국의 우수한 성과들과 관련 없이 이루어진 것이 있었던가”라고 스스로 물은 뒤, “없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의 고귀한 성과들은 다 그들을 널리 섭렵하고 충분히 소화한 높은 일반적 문화 수준 위에서 달성된 것이었다.”고 답했다.<sup>67)</sup>

박시형은 “학문의 자유로운 연구와 자유로운 발표에 대하여 우리 당 8월 전원회의 문헌들은 거듭 이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반대, 자유로운 연구 및 발표의 고취와 관련한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와 및 그 실천,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구호 밑에 전개되는 중국 과학계, 예술계의 활발한 활동, 이것들

66) 김광운(2011), pp. 283-284.

67) 박시형(1956), 「[권두언] 조선 력사 연구 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력사과학』 1956-6, p. 3.

은 모두 우리의 전진에 거대한 방조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8월 전원회의 그리고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이 벌어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를 굳이 거론하는 대담함이 엿보인다. 박시형은 “누구도 임명하지 않은 소위 <권위자>나 과학 세계에서는 쓰지 않는 소위 <중앙>이라는 말은 다 교조주의자들이 조작해 낸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과학은 종교로 변질한다”고 비장한 어조로 글을 맺었다.<sup>68)</sup>

박시형의 주장은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경색된 정국, 구체적으로는 『력사과학』 지면에서 소련 역사학에 대한 소개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 제기였다. 특히 ‘교조주의’ 비판이라는 권력자의 무기를 거꾸로 잡아 학문의 자유를 옹호하고자 한 고도의 담론적 실천이었다. 박시형의 전략적인 비판은 역으로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북한 역사학계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소련을 다녀온 박시형은 『력사과학』 1958년 제1호에 실은 글에서, “쏘련을 위시로 한 선진 력사 학계들에서 아르히브(아카이브 — 인용자) 리용이 일층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력사적인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부터”라며, “개인 숭배와 밀접히 련결된 독단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일반 사상 사업 가운데서 특히 력사 학계에서 어떠한 주어진 도식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정확한 력사적 사실에 근거”할 필요성을 역설했다.<sup>69)</sup> 정치와 이데올로기에서 거리를 두면서 역사학을 사실에 근거한 학문으로 정립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sup>70)</sup>

68) 박시형(1956), pp. 5-6.

69) 박시형(1958), 「모스크바와 뻘라가에서」, 『력사과학』 1958-1, p. 71.

70) 박시형이 정권 비판으로 비칠 수 있는 대담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의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시형은 6·25 전쟁 중 김일성의 배려로 중국 항주로 피난했다. 한편, 1980년대 박시형은 중국 연길을 방문하여 조선족 역사학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석형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상은 필자가 2018년 9월 8일 중국 연변에서 실시한 구술 조



#### 4.2. 리청원 비판과 숙청

1950년대 후반 경직되어 가는 북한 역사학계를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리청원이 비판을 받기 시작하여 끝내 숙청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자. 식민지기 사회주의 활동가이자 역사학자로서 활약한 리청원은 북한 정권에 참여하여 1947년 조선력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같은 해 펴낸 『조선 근대사 연구』는 소련,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새롭게 출발한 북한 역사학을 대표하는 성과로 받아들여졌다.<sup>71)</sup> 1948년 9월 『歷史諸問題』 제2호에 「김일성 장군 빨치산 투쟁의 력사적 의의」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형상화하는 데도 누구보다 앞장 섰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정식으로 출범한 조선력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백남운이 맡았고, 1952년 과학원 력사학연구소 소장은 박시형이 맡게 되는데, 리청원과 달리 두 사람이 대학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후로도 리청원은 정력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단행본을 출간하여 초기 북한의 근대사 연구의 기틀을 잡았다.

리청원은 1955년 가을에 『력사과학』 제9호와 제10호에 상하로 나누어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같은 해 이를 엮어 『조선에 있어

---

사 결과이다.

71) 소련에서 파견되어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을 역임한 역사학자 김승화는 리청원의 이 책을 계급투쟁 사관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관점이 아닌 ‘민족적 관점’에서 서술되었다고 비판했다[김승화(1949), 「비평과 서적 해제 [조선 근대사 연구](저작자 리청원, 조선력사편찬위원회 발간)」, 『근로자』 10, pp. 96-97; 김재웅(2015), 「현실정치의 규정력 아래 놓인 해방 후 북한의 역사서술 — 북한 역사서술의 시원 검토 —」, 『역사와 현실』 96, p. 149 참조]. 김승화는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설파했다. 김승화는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소련으로 추방된다. 북한 역사학은 김승화와 같은 경향을 교조주의로 비판하면서 민족사를 세워 나간 셈이다.

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라는 단행본을 출판했다. 1955년 10월에 과학원 력사학연구소 주최로 리청원의 이 글과 김석형의 「조선 봉건 사회에 있어서의 토지 소유 관계에 대하여」를 토론하는 ‘8·15 해방 10주년 기념 썬씨야<sup>72)</sup>」가 열렸다. 먼저 리청원이 식민지기 노동계급이 부르주아지를 고립시키고 1930년대에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를 수립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조선의 반일 민족 해방투쟁에서는 계급적 요인보다도 민족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으므로, 부르주아지에 대한 고립뿐 아니라 그들과 연대한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sup>73)</sup> 10월 말에 다시 열린 ‘썬씨야」에서는 리청원의 글에 대해 팽팽한 찬반 토론이 있던 뒤, 리청원 스스로 간단한 개괄적 발언을 하고 폐회하였다.<sup>74)</sup>

『력사과학』 1957년 제1호 학계소식에는 ‘삼국 시기의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 ‘조선에서의 부르주아 민족 형성에 관한 토론회’와 더불어 ‘후보 원사 리청원 저 《조선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대한 합평회’ 소식이 함께 실렸다. 합평회에서는 “일제하 우리나라 혁명 발전과 로동운동에서 큰 장애로 된 종파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한 과학적 해명과 분석들이 가해지지 못한 것”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학술토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없었다. 리청원은 토론회 말미에 “이상에서 제기된 좋은 의견들이 앞으로의 연구에 귀중한 참고로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일련의 문제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차이되거나 과학적으로 불충분하게 해명된 문제들은 서로 논쟁을 통하

72) ‘썬씨야’(сессия)는 영어로 세션(session)을 뜻하는 러시아어다.

73) 편집부(1955), 「학계소식」 8·15 해방 10주년 기념 썬씨야, 『력사과학』 1955-11, pp. 117-118.

74) 편집부(1955), 「학계소식」 8·15 해방 10주년 기념 과학 썬씨야, 『력사과학』 1955-12, p. 133.

여 발전시키자”고 발언했다.<sup>75)</sup> 리청원은 나머지 두 토론회에도 ‘력사 연구소 근대 및 현대사 연구실장’ 자격으로 출석해 토론에 참가했다.

『력사과학』 1957년 제2호에는 리청원의 글을 비판하는 김상룡의 논문이 실렸다. 김상룡은 “로씨야 부르쥬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부르쥬아지를 고립시킨 그 정책을 조선에서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의 수립을 위한 투쟁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과연 정당하겠는가?”<sup>76)</sup>라면서 리청원이 소련의 사례를 그대로 추종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조국 광복회에 단시일내에 그렇게 많은 애국적 력량이 집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민족 부르쥬아지에 대하여 고립화 정책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과의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을 쓴 결과이며 그 정책의 정당성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77)</sup>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북한 정권이 주체적 입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소련의 사례를 모방하고 김일성의 조국 광복회 노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다만 김상룡은 ‘리청원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예의를 지켰다.

1957년 12월에는 황장엽과 김후선이 리청원의 책을 비판하는 평론을 『근로자』에 발표했다. 김상룡의 글과 비슷한 내용을 담았지만, 리청원을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한 점에서 달랐다.<sup>78)</sup> 리청원에 대한 비판이 학술적 논쟁이기를 그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격으로 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론이 실린 매체도 역사학 학술지가 아니라 조선로동당에서 발행하는 잡지인 『근로자』였다.

75) 편집부(1957), 「[학계소식] 후보 원사 리청원 저 《조선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대한 합평회», 『력사과학』 1957-1, pp. 91-92.

76) 김상룡(1957), 「[토론]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과 민족 부르쥬아지에 대한 문제», 『력사과학』 1957-2, p. 59.

77) 김상룡(1957), p. 61.

78) 황장엽·김후선(1957), 「[서적 해제 및 평론] 리청원 저 『조선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관하여», 『근로자』 12(루계 145호).

리청원은 1956년 제2호까지 『력사과학』의 ‘책임편집위원’이었지만, 그 다음호부터 여러 ‘편집위원’ 중 한 사람으로 격하되었다. ‘8월 전원회의 사건’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그나마 1957년 제5호부터는 편집위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무렵 리청원은 당 중앙위원회 고급당학교 교장에서 과학교육출판사 교정원으로 좌천되었다.<sup>79)</sup> 리청원 비판이 학문 영역에서 정치 영역으로 옮겨 간 상황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황장엽과 김후선은 역사학자라기보다 정권의 이데올로그였다.

『력사과학』 1958년 제1호 권두언은 김석형이 집필했다. 김석형은 ‘종파 분자’들이 ‘교조주의와 수정주의’에 빠져 국제 노동운동의 ‘불순한 수정주의적 《조류》’를 타려고 한다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연안계 지도자이자 역사학자인 최창익을 들었다. 그리고 최창익이 규합한 ‘역사가’, ‘이론가’를 열거하면서 리청원을 처음으로 꼽았다. 리청원의 연구에 대해서는 그가 식민지기 사회주의 ‘사상단체’를 높게 평가한 것을 ‘수정주의적 견해’이자 최창익의 ‘종파 유익설’에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리청원의 책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저서를 주석도 없이 장황하게 인용하면서 심지어 ‘중국’이라는 문구만을 ‘조선’으로 바꾸어 자기 말처럼 서술했다고 지적했다.<sup>80)</sup> 김석형의 강한 비판은 리청원의 역사학자로서의 활동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부정된 것을 뜻했다.

리청원 그리고 최창익을 ‘교조주의’에 더해 ‘수정주의’로 비판한 것이 눈에 띈다. 『로동신문』 1958년 3월 6일자에 실린 글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금철은 ‘최창익, 박창옥 등의 반당 종파’가 “국제적으로 나타났던 수정주의 《리론》과 《구호》를 리용하여 그를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sup>81)</sup> 『력사과학』 1959년 제1호에 실

79) 조수룡(2020), p. 143.

80) 김석형(1958), 「위대한 강령적 문헌들을 깊이 연구하자」, 『력사과학』 1958-1, pp. 1-6.

81) 편집부(1958),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글은 “최창익, 박창옥 등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이 우리 나라와 소련 간에 리간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우리 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했다.<sup>82)</sup> 1950년대 말 북한에서 ‘수정주의’는 유고슬로비아의 티토를 가리키는 말이었다.<sup>83)</sup> 티토가 소련과 미국 양대 블록을 비판하고 ‘중립’을 표방한 데 대해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sup>84)</sup>

리청원에 대한 비판은 1955년에 학술적 논쟁으로 시작되었다. 소련 역사학에서 수입되어 북한 역사학계에서도 중시된 ‘비판과 자기비판’ 문화의 전형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이는 1953년 스탈린 사후 해빙을 맞은 소련 역사학계,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소련 역사학의 동향을 접하던 북한 역사학계 전반의 분위기였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그리고 같은 해 가을의 헝가리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과 소련의 역사학은 나란히 경직되어 갔다. 리청원에 대한 비판도 학문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 갔다. 리청원에게 붙여진 ‘교조주의’라는 표식은 조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소련의 사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었다.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소련과 거리를 두고자 했던 북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표현이다. 나아가 1958년에 이르러 김일성의 혁명 전통 유일화에 방해가 되는 리청원에게 ‘수정주의’라는 비난이 새로이 들썩워졌다. 비판과 자기비판 문화는 학술적 토론을 지향했지만 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쉽게 국내 정

---

회 부위원장 박금철 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58.3.6., p. 2.

82) 리형우(1959),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력사과학』 1959-1, p. 71.

83) 허창봉(1958), 「국제 관계 문제에 대한 현대 수정주의의 《주장》을 배격한다」, 『국제생활』 1958-8 등 참조.

84) 홍종욱(2018), 「1950년대 북한의 반동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61, 참조.

china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았다.

## 5. ‘력사주의 원칙’과 보편사로서의 민족사 확립

### 5.1. 노예제 논쟁과 근현대 시기구분 논쟁

『력사과학』 1960년 제1호에는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라는 글이 실렸다. 이 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김창만이 행한 연설을 옮긴 것이다. 김창만은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다른 당들도 각각 자기 민족의 역사와 노동계급의 특색에 따라 특수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소련 공산당을 일방적으로 따라 배울 대상이 아니라 여러 공산당 가운데 하나로 상대화한 셈이다. 김창만은 역사 연구에서 ‘당성의 원칙’과 함께 ‘력사주의적 원칙’이 중요하다고 천명하였다. 역사주의는 “력사에서 일정한 현상, 사건 혹은 사실들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또 이 현상이 어떠한 중요한 계단을 거쳐서 발전하였으며 현재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sup>85)</sup>를 연구하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김창만은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공식, 기성 명제들을 가지고 우리 력사를 오려 맞추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표본으로 리칭원을 들어 비판했다. 리칭원의 연구에는 주체성이 없다는 비판이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 노예소유자적 사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는 구라파에서 어떤 민족이 이미 봉건 사회로 발전하는 앞선 민족들을 만나 원시 공동체 제도로부터 곧 봉건 사회로 이행하였다는 실례를 들면서 조선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하고도

85) 김창만(1960),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1959년 12월 25일 《당 력사 집필 요강》 토론회에서 한 연설), 『력사과학』 1960-1, p.3.

황당한 론거”를 내놓는다고 비판했다.<sup>86)</sup> 당시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노예제 유무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었다. 김창만의 발언은 논쟁의 결말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력사과학』 1960년 제4호 권두언은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온 길」이었다. 이 글에서는 다시 한번 “최창익과 그의 졸개인 리청원”을 종파사상을 선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들이 “우리 조국 력사 문화에 대하여 경시”하고 “맑스-레닌주의 명제들을 통째로 우리 력사를 서술하는 데 옮겨” 놓았다고 지적했다.<sup>87)</sup> 여기서 최창익과 리청원을 ‘교조주의적 편향’에 더해 ‘반 력사주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한 것이 인상적이다. 글의 말미에서는 김창만이 역사가들에게 ‘교조주의적, 허무주의적 편향’을 바로잡고 ‘당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을 고수하라고 강조한 것을 언급했다.<sup>88)</sup>

‘당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이 북한 역사학의 이념으로 확립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의 전통과 특수성에 대한 강조를 ‘력사주의’ 원칙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북한의 민족사 추구는 소련의 국민사 서술의 영향을 받았다. 1930년대 스탈린은 포크로프스키의 ‘추상적인 사회학적 도식’을 비판하고, 사실, 사건, 인물을 중시하고 국가와 민족을 강조했다. 19세기 서구에서 콩트 류의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랑케 류의 역사주의가 등장한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sup>89)</sup> 1930년대 이래 소련의 국민사 서술을 수용하여 나름의 민족사를 세우고자 한 북한 역사학의 영위를 스스로 ‘력사주의’라고 천명한 것은 적절한 명명이었다고 할

86) 김창만(1960), p. 3.

87) 편집부(1960),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온 길」, 『력사과학』 1960-4, pp. 4-5.

88) 편집부(1960), p. 15.

89) 홍종욱(2019), 「실증사학의 ‘이념’ — 식민지 조선에 온 역사주의 —」, 『인문논총』 76-3, 참조.

수 있다.

북한 역사학은 사적 유물론에 입각해 우리 역사에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이려고 했다. 김석형은 『력사과학』 1957년 제3호에 실은 글에서 “우리 사학계에서 발로되고 있는 교조주의, 형식주의, 주체성의 결여 등의 부정적 현상은 남의 것은 《전형적》이고 우리 것은 《비전형적》이라는 선입견에서 출발하여 우리 나라 현실을 외국의 그것과 기계적으로 대비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사회 발전의 법칙이 상고로부터 오늘 날까지의 우리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의 독자성도 우리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고 밝혀 민족사를 내재적이고 발전적으로 그리고자 노력했다.<sup>90)</sup>

한편 김석형은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외국의 것을 교훈으로 참고로 하는 데에는 일정한 신중성과 전제들이 반드시 요구된다.”<sup>91)</sup>고 덧붙였다. ‘교조주의’ 즉 소련 역사학에 대한 추종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만 『歷史諸問題』와 『력사과학』에 소개된 내용만을 보더라도, 외국 특히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역사학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역사상을 세워간 것이야말로 소련 역사학의 특징이었다. 북한 역사학은 소련 역사학에 배워 소련 역사학과 거리를 둔 셈이다.

『력사과학』 1955년 제7호에는 리능식이 소련에서 벌어진 ‘로마 제국에서의 노예제 붕괴와 봉건제 발생’에 관한 토론을 소개했다. 소련 역사학계의 논쟁에서는 로마 제국의 고대 노예소유자 사회 내부에서 봉건적 우클라드가 형성되었는지를 놓고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갈렸다. 리능식은 긍정적 견해에 “보다 많은 과학성을 인정”하고,

90) 김석형(1957), 「조선 역사 연구의 기초 축성을 위하여」, 『력사과학』 1957-3, pp. 9-10.

91) 김석형(1957), p. 10.



“노예소유자 사회의 태내에서 봉건적 관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야만인의 정복과 그의 사회제도를 통해서만 발생되었다면 봉건제 발생의 이 행정은 세계사적 일반성을 가진 도식으로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sup>92)</sup> 역사의 내재적 발전을 중시한 셈이다.

또한, 노예제 몰락과 봉건제 발생을 고찰하면서 로마 제국의 서방과 동방을 구별하여 각각의 특수성을 들고 있는 데 주목하여, “조선, 중국을 위시한 동방 각국의 노예제 및 봉건제의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국 동방에서 전개된 노예제 붕괴와 봉건제 발생의 행정”이라고 밝혔다.<sup>93)</sup> ‘동방 노예제’의 특성으로는 공동체의 존재와 토지국유의 전통 등이 들어졌다. 소련 역사학의 추이는 북한 역사학계의 노예제 및 봉건제 논쟁과 관련해 주목된다. 리능식은 이 글 가운데서 “우리나라와 동방 제국의 고대 사회 내부에 있어서의 봉건적 제 관계의 발생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적지 않는 시사와 이론적 방조”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sup>94)</sup>

같은 『력사과학』 1955년 제7호에는 「중국 고대사 시기구분 문제의 토론에 관하여」라는 중국 학자의 글이 번역되어 실렸다. 이 글에서는 “중국 력사상의 노예제와 봉건제의 시대구분에 관한 문제는 력사 학계에서 매우 관심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쏘련 학자들도 적지 않게 공헌”했다고 밝혔다.<sup>95)</sup> 여러 의견이 분기했지만 그들 사이의 ‘공통점’으로서 “중국이 노예제 시대를 겪은 것, 노예제의 잔재가 노예 사회의 붕괴 이후에도 의연히 장기간 존재한 것” 등을 들

92) 리능식(1955), 「[학계소식] 노예 제도 붕괴와 봉건 제도 발생에 관한 문제의 토론」, 『력사과학』 1955-7, pp. 103-110.

93) 리능식(1955), p. 110.

94) 리능식(1955), p. 103.

95) 림순부(김일출 역)(1955), 「[번역] 중국 고대사 시기구분 문제의 토론에 관하여」 (중국 과학원 과학 통보 1955년 4월호), 『력사과학』 1955-7, p. 96.

수 있다고 소개했다.<sup>96)</sup>

북한의 노예제 논쟁은 1955년에 김광진이 우리 고대사에 노예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유호가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56년 9월에 과학원 력사학연구소는 ‘삼국의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을 조직했다. 김광진은 우리나라는 중국 선진 문명의 영향을 받아 노예제를 거치지 않고 원시공산제에서 봉건제로 직접 이행했다고 주장했고, 도유호는 동양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노예제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양 진영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지만, 1960년에 들어 쌍방의 논자들이 고조선을 ‘노예소유자 사회(고대 동방형의)’<sup>97)</sup>로 규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결국 고조선을 이은 삼국 시기를 봉건제로 규정하면서 논쟁이 결착되었다.<sup>98)</sup>

『歷史諸問題』와 『력사과학』에 소개된 소련 역사학의 추이, 그리고 우리 역사에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노예제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역사학계 내외의 거듭된 주장에 비추어 봤을 때, 논쟁의 결말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는지 모른다. 고조선은 당초 ‘노예소유자 사회(고대 동방형의)’로 규정되었지만, 1963~65년에 중국과 공동으로 중국 동북지방 유적을 조사한 후에는 순장제가 보편적으로 실시된 전형적 생산노예제 사회로 재규정되었다.<sup>99)</sup>

북한 역사학계의 근현대 시기구분 논쟁에서도 소련 및 중국 역사학계의 영향이 짙게 확인된다. 『력사과학』 1955년 제3호에는 중국 학자가 쓴 「중국 근대사 시기구분에 대한 문제의 검토」가 번역되어 실렸다. 이에 따르면 호승(胡繩)은 “계급투쟁의 표현으로써 시기구분의 표

96) 립순부(김일출 역)(1955), p. 102.

97) 편집부(1960), p. 14.

98) 송호정(1990), 「전근대사의 시대구분」,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 1』, 한길사; 홍종욱(2014) 참조.

99) 송호정(1990), p. 35.

식을 삼는다”는 소련 역사학계의 결론을 따르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수임(孫守任)은 “중국 근대의 반식민지적 반봉건적 사회는 한개의 특수한 과도적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양양과 퇴조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그것이 봉건주의와 서로 결합하는 과정의 성격, 즉 모택동이 말한 ‘주요모순’의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00)</sup>

『력사과학』 1957년 제3호에는 ‘력사 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 이름으로 「쏘련 학계에서의 쏘베트 시대사 시기구분과 중국 학계에서의 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한 토론 개관(초역)」이 실렸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호승과 손수임의 논쟁을 정리했는데, 두 사람은 아편전쟁이 일어난 1840년 무렵부터 1919년까지를 근대사로 파악하는 점에서는 같았다. 이와 달리 리영화(李榮華)는 소련 역사학이 중세 사회를 봉건 제도의 형성, 발전, 붕괴의 세 단계로 나누고, 스탈린, 키로프, 즈다노프 역시 세계 근대사를 자본주의의 승리와 확정, 몰락의 개시 및 경제 정치적 위기의 격화와 붕괴의 개시 등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중국 근대사도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형성, 심화 및 붕괴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면, 근대의 종점을 1949년으로 보았다. 현대사는 사회주의 시대의 역사이고 근대사는 자본주의 시대의 역사이므로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1949년까지는 현대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소련이 10월 혁명 이후를 현대사로 보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설명이었다. 이 글은 지금 중국 학교에서는 1840~1949년의 반식민지 반봉건 시대사를 근대사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sup>101)</sup>

100) 편집부(1955), 「번역」 중국 근대사 시기구분에 대한 문제의 검토, 『력사과학』 1955-3, p. 112.

101) 력사 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1957), 「[학계소식] 쏘련 학계에서의 쏘베트 시대사 시기구분과 중국 학계에서의 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한 토론 개관(초역)」, 『력사과학』 1957-3, p. 67.

아울러 소비에트 시대사 시기구분 논쟁에 대해서는 “시기구분의 기초를 생산 방식의 발전 변화로 보는 견해와 생산 방식의 발전 변화와 상부 구조의 성격 변화를 함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바, 지금까지는 후자가 더 다수의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sup>102)</sup>

1957년 5월부터 북한 역사학계의 근현대 시기구분 논쟁이 시작되었다. 쟁점은 시기구분의 기준 그리고 근대의 시점과 종점이었다. 김희일 등은 ‘사회구성설’의 입장에서 1876년을 근대의 시점으로 보았다. 리나영 등은 ‘계급투쟁설’의 입장에서 1866년설을 근대의 시점으로 보았다. 근대의 시점은 1876년의 강화도조약 체결과 1866년의 반침략 투쟁을 분리할 수 없는 통일적 과정으로 보면서 1866년을 근대사의 시점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근대의 종점에 대해서는 ‘계급투쟁설’에 선 리나영이 1919년설을 제기했다. 리나영은 소련을 따라 근대를 자본주의, 현대를 사회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교조주의라고 비판했다.<sup>103)</sup> 그러나 근대의 종점은 1945년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과학원 력사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이 주관한 토론 총화에서는 근대사 시기구분은 자본주의에 조응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수성을 띠고 언제 존재했는가를 구명하는 데 귀착된다면서, 결과적으로 “해방 전 우리나라에 존재한 식민지(반식민지) 반봉건사회 시대”가 우리나라의 근대사라고 결론지었다.<sup>104)</sup> ‘사회구성설’에 입각하여 ‘식민지 반봉건사회’라는 조선의 특수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중국 역사학이 소련 역사학을 배

102) 력사 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1957), p. 61.

103) 리나영(1989), 「조선근대사의 시기구분에 대하여」(1957), 이병천 編,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 — 사회성격과 시대구분 문제 —』, 창작과비평사 참조.

104) 이병천 編(1989),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 논쟁 — 사회성격과 시대구분 문제 —』, p. 67.

우면서도 자신의 특수성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참조하면서, 북한 역사학도 나름의 역사상을 확립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2. 소련 역사학 비판과 보편사로서의 민족사 확립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1956년에 『조선통사(상)』이 나온 데 이어 1958년에는 『조선통사(하)』가 간행되었다. 1962년에는 1950년대 후반 벌어진 여러 논쟁의 성과를 반영하여 『조선통사(상)』 개정판이 나왔다. 이로써 노예제에서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에 입각해 우리 역사를 서술하려는 시도가 일단 완성되었다. 민족이론이라는 점에서도 1962년 『조선통사(상)』 개정판은 소련의 ‘문화전파설’을 배격하고 혈통 중심으로 서술했다. 1956년 『조선통사(상)』에서 소련 학계의 ‘경제공동체론’ 영향을 반영하여 고구려·백제·신라의 통일을 ‘준민족’ 형성의 요인으로 서술한 것과 비교할 때 민족주의적 색채가 더 짙어졌다.<sup>105)</sup>

『력사과학』 1962년 제2호에 김석형이 쓴 「해방 후 조선 력사학의 발전」은 이즈음 북한 역사학의 방향을 뚜렷이 보여준다. 김석형은 “3국에 선행하여 고조선이라는 노예제 사회를 토대로 하는 첫 계급국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론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력사를 남의 력사에서 빌어 온 틀에다가 맞추어 버리는 교조주의적 견해와 일반적 합법칙성이 아니라 그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 이즈러진 력사로서 우리 력사를 규정하려는 부당한 경향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sup>106)</sup> 근대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는 다 부르죠아 혁명이 있었는데 왜 우리 나라 력사에만 그것이 없었는가”라는 김일성의 말을 인용한

105) 김태우(2002), 「북한의 스탈린 민족이론 수용과 이탈 과정」, 『역사와 현실』 44 참조.

106) 김석형(1962), 「해방 후 조선 력사학의 발전」, 『력사과학』 1962-2, p. 4.

뒤, 이를 “사회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추켜세웠다. 김석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학이 갖추어야 할 방법론으로서 “당성과 역사주의 원칙”을 제기했다.<sup>107)</sup>

소련 역사학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졌다. 『력사과학』 1961년 제3호에 실은 글에서 김석형은 『조선통사(상)』 러시아어판에 부친 미하일 박의 「서문」을 문제 삼았다. 미하일 박이 ‘계급 국가’인 고조선의 존재를 부정하고 중국 한나라가 문명을 전해준 것처럼 서술한 것을 “로씨야 역사를 외국하기 위하여 식민주의자들은 악명 높은 〈노르만설〉을 퍼뜨린 일”에 빗대어 비판했다.<sup>108)</sup> 『력사과학』 1961년 제3호에 김희일은 19세기 후반 조선을 다룬 러시아 학자의 글에 대한 서평을 게재했다. 김희일은 저자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고, 조선에서 자본주의 맹아 발생, 실학사상의 근대성,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의 개혁적 성격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저자가 “당성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의 요구로부터 리탈하고 부르쥬아 객관주의에 기울어”졌다고 비판했다.<sup>109)</sup> 김석형과 김희일은 소련 역사학이 보인 우리 역사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을 ‘노르만 설’과 ‘부르주아 객관주의’ 등에 빗대어 비판했다. 소련 역사학의 방법을 가지고 소련 역사학을 비판한 셈이다.

1963년 가을에는 김석형·김희일·손영종 세 사람의 이름으로 「《전 세계사》(쏘련 과학원 편) 조선 관계 서술의 엄중한 착오들에 대하여」가 『력사과학』(1963년 제5호), 『로동신문』(1963.9.20.), 그리고 『근로자』에 동시에 게재되었다. 소련 역사학의 한국사 서술에 대한 전면적인

107) 김석형(1962), p. 6.

108) 김석형(1961), 「[비판] 《조선통사(상)》의 로문판 〈서문〉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1-3, p. 2.

109) 김희일(1961), 「[서평] 게·데·짜가이 《19세기 후반기 조선사 개요》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1-4, p. 64.

비판이었다. 비판의 주된 대상은, 위만조선을 조선사의 시작으로 본 것, 기자동래설, 삼국의 건국연대를 낮게 잡은 것, 임나일본부설, 고려와 몽골 관계에서 고려의 주권을 무시한 것, 발해를 만주의 국가로 처리한 것, 갑신정변을 일본 주도의 운동으로 서술한 것, 1920~30년대 항일무장투쟁을 소홀히 다룬 것 등이었다. 요컨대 고대로부터 근대에 걸쳐 이른바 타율성론, 정체성론적인 서술을 문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김석형 등은 소련의 한국사 서술의 방향이 잘못된 원인으로서는 “과거 일본 침략자들의 책과 식민주의 력사 서적들에 의거”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sup>110)</sup>

『로동신문』 1963년 1월 30일자에는 김일성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코즐로프 및 안드로포프와 만나 소련의 ‘대국주의’ 전횡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기사가 실렸다.<sup>111)</sup> 『로동신문』에서 소련을 가리킬 때 1961~62년경까지는 ‘위대한 소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뒤에는 “사회주의 형제 나라들” 등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학계에도 드러났다. 『력사과학』은 1957년 이후 ‘번역’ 난을 없애고 소련 역사학 동향은 ‘학계소식’을 통해 전해왔지만, 1962년 제5호를 마지막으로 소련이나 중국 역사학에 대한 우호적인 소개조차 취미를 감추었다.

북한 학계는 역사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역사를 내재적, 발전적으로 그리려는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을 달성했다. 보편사로서의 민족사를 확립한 것이다. 소련 역사학은 일방적으로 따라 배워야 할 대상이기를 그쳤고, 동시에 세계사 속에 우리 민족사를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196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5차 동방 학자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조선 분과가 조직되었다.<sup>112)</sup> 『력사과학』 1962년 제1호에는 말

110) 김석형·김희일·손영중(1963), 「《전 세계사》(소련 과학원 편) 조선 관계 서술의 엄중한 착오들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3-5.

111) 김광운(2011), p. 284.

미에 처음으로 영문 목차가 실렸다. 이후 한동안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목차가 번갈아 실렸다.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력사과학』에서 권두언이 줄어들었다. 1955년 『력사과학』 창간이래 권두언은 북한 역사학계 내외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통해 북한 역사학의 이념과 방법을 천명하는 장이었다. 논쟁의 감소는 북한 역사학이 안정되는 한편에서 경직되어 가는 상황을 반영한다.

김석형은 『력사과학』 1966년 제6호에 「역사연구에서 당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을 관철할 데 대하여」를 발표한다. 김석형은 역사연구에서 ‘복고주의와 허무주의’라는 두 편향을 극복하자는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했다. 그리고 복고주의적 착오는 당성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할 때, 허무주의적 경향은 역사주의 원칙에서 물러설 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당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은 다른 말로 하면 각각 “조선 노동계급의 립장, 당의 립장”과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는 민족 자주적 립장”을 관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sup>112)</sup>

교조주의 비판에 대신해 새롭게 복고주의 비판이 등장한 것이 눈에 띈다. 이전에 교조주의와 허무주의에 맞서 역사주의 원칙이 강조되었다면, 이 글에서는 복고주의에 맞서 당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허무주의에 맞서 역사주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당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에 대한 균형 잡힌 체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식민주의 역사학이나 소련 역사학에 더해 북한 사회 내부의 보수화가 북한 역사학의 경계 대상으로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1967년 조선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

112) 편집부(1961) 「[권두언] 우리 당 제4차 대회가 제시한 과업 수행을 위한 역사학계 임무」, 『력사과학』 1961-6, p. 7.

113) 김석형(1966), 「역사연구에서 당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을 관철할 데 대하여」, 『력사과학』 1966-6, pp. 1-7.



를 계기로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었다.<sup>114)</sup> 이듬해 1968년부터 『역사과학』 발행이 정지되었다. 1977년에 『역사과학』이 복간될 무렵 북한 역사학은 ‘주체의 력사관’에 입각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 6. 맺음말

소련 역사학의 국민사 서술은 민족의 역사를 내재적, 발전적으로 그린다든 점에서 초기 북한 역사학이 발 딛고 있던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반식민주의 전통과 궤를 같이했다. 북한 역사학은 소련 역사학, 그 가운데서도 1930년대 중반 이후 확립된 스탈린주의 역사학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역사학은 소련 역사학과 거리를 두지만 이는 거꾸로 소련 역사학을 내면화하는 과정이었다. 1960년을 전후하여 북한 역사학은 노예제에서 사회주의에 이르는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에 입각해 민족사를 체계화 하는데 성공했다.

1960년대에는 당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이라는 북한 역사학의 이념이 확립되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인간 사회를 법칙적,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계몽주의, 실증주의를 비판하며 랑케 류의 역사주의가 대두했다. 역사주의는 국가와 민족을 중시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계몽주의나 실증주의 역사학과 친화적이다.<sup>115)</sup> 1930년대 중반 소련에서 경제결정론적인 포크로프스키 역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스탈린주의 역사학의 주장은 랑케 류의 역사주의를 방불케 한다. 다만 당성의 원칙을 강

114) 김광운(2011), p. 289.

115) 홍종욱(2019), p. 294.

조함으로써 계급적 시각을 가미한 것이 근대 역사학 일반과의 차이였다. 이는 민족과 계급을 조화시키려 한 북한 역사학의 모습이기도 하다.<sup>116)</sup>

북한 역사학은 국가와 민족을 중시하는 근대 역사학의 역사주의 전통 위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계급적 관점을 더해 형성되었다. 당성과 역사주의라는 원칙은 소련 스탈린주의 역사학의 국민사 서술의 이념이기도 했다. 북한 역사학은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에 입각하여 민족사를 체계화함으로써 식민지, 주변부에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이 관철됨을 보였다. 이는 민족 혁명의 세계화라는 20세기 공산주의 운동의 지향이자, 국민 국가를 완성하고자 하는 주변부 근대의 시대정신이었다.

---

116) 조호연은 북한 역사학에 대해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계급투쟁과 관련된 주관적 측면은 당성의 원칙으로, 그리고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이자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이라는 객관적 측면은 역사주의의 원칙으로 표현”했다고 분석했다(조호연(2015), 「역사인식 속에서의 ‘냉전’ — 북한 역사학계의 러시아사 이해 —, 『서양사론』 127, p. 83). 다만 북한 역사학이 말하는 역사주의 원칙의 핵심은 교조주의, 사대주의, 허무주의를 비판하고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당성과 역사주의 원칙은 주관과 객관보다는 각각 계급과 민족을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참고문헌

### 【자 료】

『국제생활』, 『근로자』, 『로동신문』, 『歷史諸問題』

### 【논 저】

- 김광운(2011),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환경」, 『한국사연구』 152.
- 김재웅(2015), 「현실정치의 규정력 아래 놓인 해방 후 북한의 역사서술 — 북한 역사서술의 시원 검토 —」, 『역사와 현실』 96.
- 김태우(2002), 「북한의 스탈린 민족이론 수용과 이탈 과정」, 『역사와 현실』 44.
- 노경덕(2010), 「바르가 논쟁의 재고, 1941~1949」, 『역사학보』 206.
- 디미트로프(1987), 「파시즘의 공세와 파시즘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의 통일을 추구하는 투쟁에서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임무」(코민테른 제7회 대회 연설, G. M. 디미트로프(김대건 편역), 『통일전선연구 — 반파시즘 통일전선에 대하여 —』, 거름.
- 송호정(1990), 「근근대사의 시대구분」,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 1』, 한길사.
- 이병천 編(1989),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 — 사회성격과 시대구분 문제 —』, 창작과비평사.
- 조수룡(2020), 「경합하는 ‘혁명전통’ —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이해와 재구축 —」, 『사학연구』 137.
- 조호연(2015), 「역사인식 속에서의 ‘냉전’ — 북한 역사학계의 러시아사 이해 —」, 『서양사론』 127.
- \_\_\_\_\_(2001), 「스탈린 시대의 역사학」, 『인문논총』 14,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케빈 맥더모트·제레미 애그뉴(황동하 역)(2009), 『코민테른 — 레닌에서 스탈린까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 서해문집.
- 홍종욱(2019), 「실증사학의 ‘이념’ — 식민지 조선에 온 역사주의 —」, 『인문논총』 76-3,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 \_\_\_\_\_(2018), 「1950년대 북한의 반동회외와 비동맹운동 인식」, 『동북아역

사논총』 61.

\_\_\_\_\_ (2014), 「반식민주의 역사학에서 반역사학으로 — 동아시아의 ‘전후 역사학’과 북한의 역사 서술 —」, 『역사문제연구』 31.

立石洋子(2017), 「「雪どけ」とソ連の歴史学 — 1953-56年の『歴史の諸問題』誌の活動 —」, 『成蹊法学』 87.

\_\_\_\_\_ (2011), 『国民統合と歴史学: スターリン期ソ連における「国民史」論争』, 学術出版会.

和田春樹(2016), 『スターリン批判 1953~56年: 一人の独裁者の死が、いかに20世紀世界を揺り動かしたか』, 作品社.

\_\_\_\_\_ (1977), 「スターリン批判: 1953-56」,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編, 『現代社会主義 その多元的諸相』, 東京大学出版会.

\_\_\_\_\_ (1976), 「戦後ソ連における歴史家と歴史学 — ソ連史学史ノート (その一)」, 『ロシア研究』 25.

Kojevnikov, A. 2000. “GAMES OF STALINIST DEMOCRACY: Ideological discussions in Soviet sciences, 1947-52”, in *Stalinism: New Directions*, edited by Sheila Fitzpatrick, London: Routledge.

원고 접수일: 2020년 8월 12일

심사 완료일: 2020년 8월 24일

게재 확정일: 2020년 8월 25일

ABSTRACT

---

## The Influence of Soviet Historiography on the Formation of North Korean Historiography

Hong, Jong-wook\*

Early North Korean historiography actively embraced Soviet historiography. Stalinist historiography, formed since the 1930s, was a national history of the Soviet Union respecting Russian nationalism based on historical materialism. The ideologies and methods of Soviet historiography were consistent with the goal of North Korean historiography to develop the history of the nation under the banner of anti-colonialism.

The publication of *History Science* in 1955 was a new beginning for North Korean historiography. While the core content of North Korean historiography was nationalism, the main form of it was collective research, especially the culture of “criticism and self-criticism”. Linking with the historiography of the Soviet Union, which had melted after Stalin’s death in 1953, the culture of “criticism and self-criticism” was created in North Korean history academia. The historiography of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became rigid side by side as they experienced the Hungarian crisis and “August Plenary Meeting” in Pyongyang, 1956. Criticism and purging of Lee Cheong-won symbolize the politicization of North Korean

---

\*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toriography.

In 1960, the Party-spirit principle and Historicism principle were established as ideologies of North Korean historiography. North Korean historiography criticized Soviet historiography and tried to distance itself from it, but this was a process of internalizing Soviet historiography. In the 1960s, North Korean historiography achieved the theory of developmental stages of national history through the debate on slavery and the time frame of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The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of various debates in the North Korean historiography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Soviet historiography.